

SK 텔레콤, 2018 년 연간 실적 발표

- 매출 16 조 8,740 억원, 영업이익 1 조 2,018 억원, 순이익 3 조 1,320 억원
- 미디어, 보안 사업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4 분기 매출, 전 분기 대비 3.9% 증가
- 고객가치혁신 성과 속속... 휴대폰 가입 18.5 만 순증, 역대 최저 해지율 기록
- “올해 5G 서비스 본격 전개... 미디어, 보안, 커머스 중심 New ICT 사업 성장판 열 것”

[2019. 1. 31]

SK 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K-IFRS 제 1115 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 년 연간 매출 16 조 8,740 억원, 영업이익 1 조 2,018 억원, 순이익 3 조 1,320 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1 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7 년(구 회계기준) 대비 각각 3.7%, 21.8% 줄었다. 연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사유로 이동통신사업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고객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출 손실을 감내하고 시행한 8 대 고객가치혁신 활동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순이익은 SK 하이닉스의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지분법 이익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 미디어, 보안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8대 고객가치혁신 성과도 속속 나타나

SK 텔레콤은 미디어, 보안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4 분기 매출 4 조 3,517 억원을 달성했다. 전 분기 대비 3.9% 증가한 수치로, 2019 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SK 브로드밴드는 연간 매출 3 조 2,537 억원, 영업이익 1,756 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디어 사업은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IP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473 만명을 기록했으며, 프리미엄 서비스인 UHD 가입 비중은 4 분기에 처음으로 전체 가입자의 50%를 넘어섰다.

ADT 캡스 실적은 4 분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ADT 캡스는 4 분기 매출 2,008 억원, 영업이익 286 억원을 달성했다. ADT 캡스의 사업 성과는 올해부터 SK 텔레콤의 연간 실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SK 텔레콤은 지난해 요금추천, 로밍, 멤버십, T 플랜 등 8 대 고객가치혁신 활동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힘썼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가입자는 연간 18 만 5 천명 순증했으며, 역대 최저 연간 해지율 1.22%(MVNO 제외 기준 0.99%)를 달성했다. 또한, 전 산업 분야를 통틀어 3 대 고객 만족도 조사(KCSI, NCSI, KS-SQI) 최장 기간 연속 1 위라는 쾌거도 이뤄냈다.

지난해 7 월말 출시한 'T 플랜'은 고객에게 '가족간 데이터 공유'라는 새로운 요금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12 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약 440 만명을 달성했다. 만 24 세 이하 고객을 위해 지난해 8 월 선보인 '0 플랜'도 12 월말 기준 가입자 50 만명을 돌파했다.

■ 5G 서비스 확대의 원년... 미디어, 보안, 커머스 중심 New ICT 사업 성장판 연다

SK 텔레콤은 올해 5G 서비스를 본격 전개하고 미디어, 보안, 커머스 중심의 New ICT 사업을 강화해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다.

5G 서비스는 5G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수도권 및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K 텔레콤은 AI 기반 네트워크 운용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차별화된 5G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할 방침이다.

MNO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차별화된 변화-혁신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여 고객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사업은 옥수수과 폭(POOQ)을 통합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미국 최대 규모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社와 손잡고 미국 차세대 방송 솔루션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올 한해 외연 확대에 나선다.

보안 사업은 지난해 ADT 캡스-NSOK 합병과 SK 인포섹 인수가 마무리 됨에 따라 물리보안에서 정보보안까지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SK 텔레콤은 올해 Home, 주차장 등에 신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커머스 사업은 지난해 11 번가의 5 천억원 투자 유치 성과로 내실 있는 사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1 번가는 AI/Data 기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풍영 SK 텔레콤 Corporate 센터장은 “지난해 New ICT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재편함으로써 MNO, 미디어, 보안, 커머스 4 대 사업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올 한해 압도적인 5G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New ICT 사업의 성장판을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 SK 텔레콤 기업 PR 팀 김연준 매니저 (02-6100-3821)**

▶ **참고자료 :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억원)

구분	'18 년	'17 년	증감율	'18 년 4Q	'18 년 3Q	증감율
매출	168,740	175,200	△3.7%	43,517	41,864	3.9%
영업익	12,018	15,366	△21.8%	2,253	3,041	△25.9%
당기순익	31,320	26,576	17.9%	4,745	10,498	△54.8%

※ '18 년은 IFRS 15 기준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억원)

구분	'18 년	'17 년	증감율	'18 년 4Q	'18 년 3Q	증감율
매출	117,056	124,680	△6.1%	28,497	29,256	△2.6%
영업익	13,075	16,977	△23.0%	2,593	3,106	△16.5%
당기순익	9,339	13,311	△29.8%	1,664	1,833	△9.2%

※ '18 년은 IFRS 15 기준

<끝>